

성(城) 안에서 즐기는 민속놀이 '재미 쏠쏠' 서산 해미읍성축제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몸체는 둥그렇고 한쪽 끝은 뾰족하게 깎아 만든 팽이에 줄을 둘둘 감아 보기 좋게 땅에 내려놓는다. 기대와 달리 힘없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진다. 힘을 내라고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좀 돌린 것 같은데, 영 체면이 안 선다.



큰 소리는 쳤겠다. 그냥 둘 수가 없어 제기를 집어 들고 제기차기에 도전해본다. 이도 쉽지가 않다. 제기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 다리를 눌러야 하는데 꼭 반 박자씩 늦는다. 마음과 몸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순간이다. 아이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잔뜩 준 많은 아빠들이 그랬다.



우리 명절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에서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렸다. 매년 가을이면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해미읍성축제'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다.

큰 명절이면 이곳에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올해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2월 7일부터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팽이치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연 날리기, 떡메치기, 투호, 널뛰기 등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성 곳곳에 마련되고 짚공예와 대나무공예 등을 시연해 즐거움을 더했다. 설날 찾아간 해미읍성에는 일찌감치 자리를 올리고 나온 사람들이 적잖게 찾아 곳곳을 돌아보며 전통 민속놀이를 즐겼다.

해미읍성 민속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그곳이 해미읍성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최근 복원한 것이기는 하지만 옛 그 시절 정취를 느껴볼만 하다. 기와집뿐만 아니라 민초들이 살던 초가집과 교묘하게 감춰 둔 재래식 화장실, 부엌 등도 복원해 놓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은 해안지역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던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조선 태종17년(1417년)부터 세종3년(1421년) 사이에 축성했다. 당시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을 이곳에 옮기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230여 년간 병마절도사영이 있었다. 효종3년(1652년)에 병마절도사영을 청주로 옮기면서 이곳에는 관아를 들어 해미읍성으로 이용했다. 또 1914년까지 겸영장이 배치되는 호서좌영으로 내포지방의 군사권을 행사했던 곳이다.



이 읍성에는 동헌을 비롯하여 아사(衙舍) 및 작청(作廳) 등의 건물들이 가득 있었으며,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유적도 일부 남아 있다. 1974년에 동문·서문 복원되었고, 1981년 성내 일부를 발굴한 결과 현재의 동헌 서쪽에서 객사와, 현재의 아문 서쪽 30m 지점에서 옛 아문지가 확인되었다. 성곽둘레는 1,800m, 높이는 5m로 성문은 동, 서, 남 세 곳에만 있고 북에는 암문이 있다. 1578년(선조11년)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한 적도 있다.

성의 둘레에는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를 돌려 심어서 탱자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탱자의 한자음을 따 지(枳)성이라고도 했다.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는 그 자체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복원한 건물들도 제법 아름답다. 하얀 눈이 가득 쌓인 성을 거니는 것은 겨울 산책의 묘미를 선사했다. 그러나 민속축제가 아니더라도 해미읍성은 찾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흰 두루마기 입고 횃불 들고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 조금 다른 의미 간직한 '아우내봉화축제'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1919년 충남 천안시 병천 아우내장터에 3천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른 것은 4월 1일이다. 호서지방 최대 독립만세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김구옹, 조인원, 유중무, 이백하, 김교선 등이 주도했다. 일본인을 죽이거나 방화를 하는 일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한 이날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김구옹과 그 모친 최씨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유관순을 포함한 많은 참가자들이 부상, 투옥됐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옥중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 때문에 모진 고

문을 당해 같은 해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한 채 순국했다.

목숨을 건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아우내봉화축제'는 매년 2월 28일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적지 주변 다양한 볼거리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적지로 들어가는 차량도 통제하는 행사관계자들은 무척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늘에 등실 떠 있는 애드벌룬이나 이리저리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다른 축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풍기는 느낌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독립열사의 사적지라는 공간적 특징과 죽음으로 향거한 선열의 촛불만세운동을 기리는 의미가 갖는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엄숙함만이 있지는 않았다.

햇불을 점화하는 저녁 8시가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축제참가자들이 이미 사적지에 모여 있었다. 일찌감치 사적지를 찾은 사람들은 식전행사로 광장과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켜보기도 하고 광장에 빙 둘러 설치한 부스에서 체험행사를 즐겼다.

만세운동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를 목판에서 탁본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캐릭터 햇불남자는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또 사적지를 찾은 사람은 빼놓지 않고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들러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향한 항거와 역사의 장면을 가슴에 새겼다. 기념관에는 유관순 열사의 생애뿐만 아니라 기미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자료와 서대문형무소 수형자기록표, 재판기록문까지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료가 가득했다.

사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기념물이 있어 일찌감치 병천을 찾아도 무료한 시간을 보낼 필요 없다. 유관순 열사 생가지와 봉화대, 추모각, 초혼묘 등은 잠깐 걸거나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사적지 진입로 구실을 하는 '열사의 거리'에는 기념조형물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어 걷기 좋은 공간이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90년 전 전국 방방곡곡과 천안시 아우내 장터에서 일어났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주기에 적당하다. 실제로 가족단위로 사적지를 찾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슴 속엔 뭉클한 감동



사적지에 어둠이 내려앉으며 식전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병천고등학교 전통연희단 '하늘소리' 공연은 단연 백미였다. 풍물과 버나돌리기, 살판, 줄타기까지 저 옛날 아우내 장터에서 펼쳐졌을지 모를 전통 놀이를 눈앞에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창 줄타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광장을 쳐다보니 하얀 두루마기와 머리띠를 똑같이 갖춘 참가자들이 가득하다.

사적지에서 아우내장터까지 횃불을 들고 행진할 참가자들이다. 식전행사가 끝나고 헌화 및 분양, 3·1절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되면서 봉화탑에 불길기 오르고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봉화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사진행 부스에서 하얀 두루마기와 머리띠를 받고 사적지 정문에서 나눠주는 횃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열을 갖춘 행렬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적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셀 수 없이 모여든 언론사 카메라기사와 현장을 담고 싶어 하는 사진 동호인들을 위해 대열은 더디기만 했다.

'열사의 거리'를 빠져나오면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됐다. 약속한 대로 대열 앞에서 외치는 만세 선창에 따라 행진 참가자들이 외치는 함성이 밤하늘에 가득했다. 대열 중간 중간에서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만세 선창이 터져 나왔고 그 때마다 주변에 있는 참가자들은 횃불을 높게 들어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따라 외쳤다. 간간히 파란 눈의 외국인도 눈에 들어왔고 3대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도 보였다.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루는 행렬 길이는 500m가 족히 넘어 보였다. 행렬 속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았다.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였다. 신념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했던 90년 전, 3천 명이 넘는 군중이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는 선조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메아리쳤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군중 앞에 선 일본 경찰과 헌병들은 오직 손에 든 총칼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금이 저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행렬이 아우내 장터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일본 헌병과의 충돌이 있었다. 유관순 열사 역할을 맡은 시민의 울부짖음과 헌병대가 쏘아대는 공포탄 소리가 아우내 장터에 가득하다. 소리를 듣고 나온 시민들까지 더해지면서 장터가 북적북적하다. 하얀 두루마기를 함께 입고 대열을 이루고 있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손에 든 횃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한독립만세'를 큰 소리로 외치며 30여 분을 걷는 동안 가슴속에선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고 있었다.

역사의 현장 속으로



90년 전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그 때 그 장터에서 간단한 해산식을 한 후 이날 '아우내봉화제'는 마무리되었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천히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터 중간쯤 이르렀을 때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 불꽃이 이날의 축제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렸다.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 한 곳을 본다. 하늘을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폭죽만큼이나 아우내 장터를 채

우고 있는 사람들도 아름다웠다.

자치단체의 축제는 대부분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축제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안시의 '아우내봉화축제'는 조금 달랐다.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들뜬 열기를 발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묘한 '긴장'과 '감동'이 배어 있다.

새봄을 맞이하기 전 아픔과 감동이 함께 한 우리 근대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햇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리 기 본 충남 봄축제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올해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주제는 '꽃, 바다 그리고 꿈'이다.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002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규모 꽃 잔치다.

다양한 학술·경연행사를 비롯해 꽃사랑 퀴즈대회, 플라워바디페인팅, 꽃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유명한 초청 토크쇼, 스트리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상설 이벤트가 펼쳐진다.

국내외 113개 지자체 및 업체에서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유류유출사고의 후유증이 박람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바다풍광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 잔치를 보고 싶다면 안면도로 달려가자.



기간 : 4. 24(금)~5. 20(수), 27일간

장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꽃지·수목원 일원

주최 : 충청남도·충청남도 개발공사

주관 :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문의 : 041) 670-6000

<http://www.floritopia.or.kr/>

4월 동학사와 마곡사를 주목하라

봄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계룡산 줄기 따라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벚꽃 예쁘게 피는 동학사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산신제와 교구본사인 마곡사 신록축제까지 다양하다.

갑사와 신원사, 계룡산도예촌을 비롯해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계룡산 줄기에서 아름다운 봄꽃 향에 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계룡산봄꽃축제 : 4월 8일~15일 (계룡산 동학사 일원)

계룡산 산신제 : 4월 10일~12일 (계룡면 양화리)

마곡사 신록축제 : 4월 19일 (마곡사)

문 의 : 공주시 문화관광과(041-840-2841)

통통하게 살찐 우럭 만나자!

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만에서 잡히는 우럭은 육질과 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우럭이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매년 6월 초에 축제를 열고 있다. 삼길포구에서 개최하는 우럭축제는 관광객 즉석노래자랑과 봉장어 잡기대회, 갯벌체험, 유람선관광, 바다낚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기 간 : 5월 말~6월 초

장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주 관 : 삼길포 우럭축제 추진위원회

문 의 : 서산시 문화관광과 (041)660-2224,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samgilpo.com>

칠갑산으로 장승 깎으러 가세~

칠갑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승 보존지역으로 유명하다. 4월 청양군에 가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장승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단 하루 뿐인 장승문화축제에서는 칠갑산 전통장승 깎기 및 장승제 시연이 펼쳐지고 대형장승 및 솟대 세우기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외에 창작 장승과 시대별, 지역별 장승을 전시해 우리나라 장승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대행사로 칠갑산 산나물 채취 체험과 전통 구기주 만들기 체험, 장승 목걸이 만들기, 민속공연, 마당극 공연 등이 펼쳐져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 기 : 4월 18일(토)

장 소 : 청양군 장승공원 (칠갑산 장곡사 입구)

문 의 : 청양군 기획감사실 041) 940-2224~5